

애플, 환율정책 들쭉날쭉… 韓 ‘아이폰’ 가격동결 효과 미미

韓 아이폰15 기본모델 125만원
美 비교시 18만원 가량 더 비싸
소비자 불만에도 긍정적 수요 전망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5 시리즈에 ‘혁신’이 없다는 반응과 달리 아이폰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1·2차 발매국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며 가격 동결에도 별 이득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애플의 정책을 지적하는 소비자들의 불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제품 출시 전 나왔던 부정적인 전망과는 달리 아이폰15의 사전 예약이 공급량을 웃돌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웨드부시 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이폰15 시리즈 사전 주문량은 작년 같은 기간 아이폰14 시리즈보다 약 10~12% 증가했으며 가장 고가인 아이폰15 프로맥스 모델은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중이다.



애플 스마트폰 시리즈 아이폰15가 공개된 지난 13일 서울 중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 아이폰15 사전예약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특히 자국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금지령’까지 내린 중국 시장에 대한 판매 부진 우려도 사전 예약의 인기에 힘입어 불식된 상태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의 애플스토어에서는 아이폰15 시리즈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이 예약 판매 시작 1분 만에 모두 완판되는 저력

을 보여줬다.

한국은 아직 출시일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시리즈들처럼 3차 출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내달 13일 정도로 출시 예정일을 점치고 있는데 ‘가격 동결’이라는 결정을 내린 애플이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해당 전략이 빛을

발할지는 미지수다.

애플은 지난해에 아이폰14 출시 당시에도 미국, 중국 출고가만 동결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인상폭은 한국이 제일 높았으며 아이폰14의 가격은 한·중·일 3개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비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시장을 두고 ‘애플의 고가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곳’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아이폰15 시리즈의 미국 발매 가격은 ▲기본 모델 799달러(128GB) ▲플러스 899달러(128GB) ▲프로 999달러(128GB) ▲프로맥스 1199달러(256GB) 등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제품이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비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격은 아이폰15 기본 모델이 미화 기준 799달러부터 시작하는데 한국은 125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 외환시장의 21일 원·달러 마감 환율(달러당 1340.5원)을 적용하면 799달러는 107만1059

원이다. 한국이 18만원 정도 더 비싸게 판매되는 셈이다.

한국 시장의 불만과 별개로 애플의 주가는 소폭 상승했으며 긍정적인 수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리드타임을 기반으로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는 것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화웨이와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고무됐다”고 전했다.

긍정적인 수요 전망에 애플의 주가 또한 소폭 상승하며 아이폰15 시리즈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폰15 프로와 프로맥스의 ‘리드타임(Lead time)’이 8주 이상까지 늘어난 상황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리드타임은 고객의 주문부터 배송까지 소요시간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리드타임이 늘어나면 소비자 수요가 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14단계 적용 항공업계 “항공권 더 비싸질 수 있어”

국제유가 지속 상승세
“공급석 부족 등 이슈 겹쳐”

국제유가 상승세로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세 단계 오른 14단계가 적용된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4단계는 올해 들어 책정된 유류할증료 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유국들의 감산 정책 유지와 중국의 경기부양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을 거듭하고 있어 유류할증료가 상승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90달러

를 넘어서며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항공권 가격도 비싸질 전망이다. 항공권 가격은 ▲기본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86.43센트를 기록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값을 기준으로 삼는데 1갤런(3.785ℓ) 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뉘어 부과되며 그 이하일 땐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10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이동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으로 3만800~22만6800원이다. 9월 유류할증료는 2만800~16만3800원이었다. 아시아나항공도 9월 2만3300~13만4600원에서 10월 3만2000~17만7100원으로 조정된다.

결국 유류할증료의 증가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항공권 비용은 크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가 오를 거라는 예상은 했었다”며 “유가 상승과 공급석 부족 등의 이슈로 항공권 값이 더 비싸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로터스, ‘엘레트라’ 공개… 사전예약 접수

순수전기 하이퍼카… 최고출력 918마력

영국 하이퍼 전동화 SUV가 국내에 상륙한다.

로터스자동차코리아는 21일 서울 성수동 피치스 도원에서 엘레트라를 공개하고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엘레트라는 로터스 첫 SUV로, 순수전기 하이퍼카로 개발됐다. 레이싱에서 이름을 알린 로터스의 기술력을 녹여냈다.

엘레트라 R은 최고출력이 918마력에 달한다. 112kW 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로, 350kW 출력 급속 충전을 지원한다.

그러면서도 첨단 ADAS를 지원, KEF레퍼런스 오디오 시스템으로 23개 스피커를 통해 강력한 사운드도 낸다.

로터스는 28일까지 엘레트라를 전시하고, 공식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국내 출시를 기념해 사전 예약 선착순 200명에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HX 헤드폰도 증정할 예정이다.



하이퍼 SUV ‘엘레트라’ /로터스자동차코리아

로터스자동차코리아 관계자는 “로터스 최초의 하이퍼 SUV 엘레트라는 로터스가 경량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고성능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로 전환하는 시대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모델”이라며, “특별한 의미가 담긴 엘레트라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을 전개하고 더 많은 고객을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로터스자동차코리아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설립했으며, 하반기 서울 도산대로에 플래그십 쇼룸을 오픈할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금호리조트

추석 연휴 이벤트 다채

금호리조트가 전국 4개 콘도(통영·화순·설악·제주)와 아산스파포레는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해 이벤트를 개최한다.

금호리조트는 ▲우리 가족 그리기 대회 ▲전통 놀이 미션 체험 ▲SNS 퀴즈 이벤트 등 3가지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 가족 그리기 대회’는 여행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준비한 이벤트로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며, ‘즐거운 가족 여행’을 테마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린 뒤 퇴실 전까지 프런트에 제출하면 된다.

/허정윤 기자

혼다, ‘올 뉴 CR-V 하이브리드’ 출시

4WD 투어링 단일 트림… 5590만원

혼다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SUV가 국내 도로를 달린다.

혼다코리아는 21일 올 뉴 CR-V 하이브리드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올 뉴 CR-V 하이브리드는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2L 직분사 앳킨슨 엔진에 E-CVT를 조합한 새로운 2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최고출력 147마력에 최대토크 18.6kg·m을 낸다. 모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주행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처음으로 전제 우레탄 커버와 소음진동 흡음재를 채용해 더 정숙해졌다.

크기도 커졌다. 전장과 휠베이스를 늘리면서 새로운 패키지 설계를 통해 2열 레그룸을 15mm 늘리고 8단계 조절



올 뉴 CR-V 하이브리드 /혼다코리아

리클라이닝 시트를 제공, 최대 2166L 적재 공간도 제공한다. 전면 직사각형 글라스 디자인과 A필러 및 후드 형상 최적화로 운전자 시야도 확보했다.

국내에는 4WD 투어링 단일 트림으로 5590만원에 판매한다. 5개 외장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전국 혼다 딜러를 통해 전시하고, 혼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할 수 있다.

/김재웅 기자

AVEL, 전력 중개사업 본격 추진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등록

LG에너지솔루션의 재생에너지 전력량 통합관리 전문 사내독립기업 AVEL(에이벨)이 본격적인 전력 중개사업 전개에 나선다.

AVEL(Add Value to Energy Label)은 8월 한달 간 진행된 한국전력거래소 주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를 위한 등록시험에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발전량 예측 제도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해 정확도에 따라 정산금을 받는 제도다. 등록시험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오차율 10% 이하여야 통과 가능하다.

또한 이번 시험에서 AVEL은 국내 최초로 제주도 ‘태양광-풍력 혼합자원’ 등록에도 최종 합격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발전량 예측이 까다로운 풍력발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AVEL은 고도화된 발전량 예측 기술을 바탕으로 등록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AVEL은 내년 초부터 제주에서 시행 예정인 재생에너지 실시간 입찰 시험사업도 준비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